

영어식 불어 발음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나 예 리(수원대 불문과)

I. 머리말

현재 우리 나라 교육 체제는, 중학교 1학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제2외국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몇몇 학생들은 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제2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3~6년 후에 제2외국어를 접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불어의 경우에는 영어와 같은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자는 발음을 반영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철자에서 발음을 얻어내는 'Spelling pronunciation'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학생들은, 불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참고: 이현복(1972)) 한편, 일반 음성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호(IP.A 기호)가 갖는 음가가 각 언어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한, 불어의 발음기호를 영어 소리와 비슷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참고: 이현복(1974)) 물론, 모국어인 한국어의 발음이 불어 발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한국식 불어 발음'과 더불어 '영어식 불어 발음'은 특별한 훈련 없이는 고치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불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어식 불어 발음'의 소개와 더불어, 이들 발음이 어떤 식으로 교정 발음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어 발음의 기술보다는 정확한 불어 발음 기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불어와 영어 발음의 차이

(1) 불어의 긴장성 (이중모음의 영향)

불어 발음의 가장 큰 특성은 '조음의 긴장성'이다. '조음의 긴장성'이란 발음 기관에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조음되는 것을 의미한다(예외: [ə]). 그러나, 처음부터 긴장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조음하기 시작하여 점차 조음 기관에 생리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음성을 조음하고 산출하는 '점증적 조음법'을 쓴다. 특히,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조음되는 불어 모음은 매우 명확한 음색을 지니게 되고 청각적으로도 분명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강세 위치에 있는 모음과 마찬가지로 비강세 위치에 있는 모음도 이완되어 흐리게 발음되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발음된다. 이러한 긴장 덕분에 불어의 모음이 다소 길게 발음되더라도 조음위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음되고 그 음색이 변하지 않으며, 이중모음의 경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영어의 모음은 조음의 첫 부분에서는 긴장이 있다가도 나중 부분에서는 음가가 불분명해진다. 긴장된 모음(tense: [i], [u], [o], [e])과 이완된 모음(lax: [ɪ], [ʊ], [ɔ], [ɛ])의 구별이 있으며(참고: 도표 1), 음량이 크고 발음이 분명한 모음과 그보다 약하고 그 음가가 순간에 따라 달라지는 추이음(推移音: glides)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이중모음'들이 많다(참고: 도표 2). 예를 들어 [aʊ]에서 [a]는 그 음가가 비교적 일정하고 음량도 커서 발음이 뚜렷한 데 반하여 [ʊ] 부분은 혀 위치의 궁극적인 목표점을 가리킬 뿐 사실상의 음가는 [a]에서 [ʊ]로 변해 가는 변화 중의 음이며 또한, 그 음량도 점점 시들어져 가는 방식으로 발음되는 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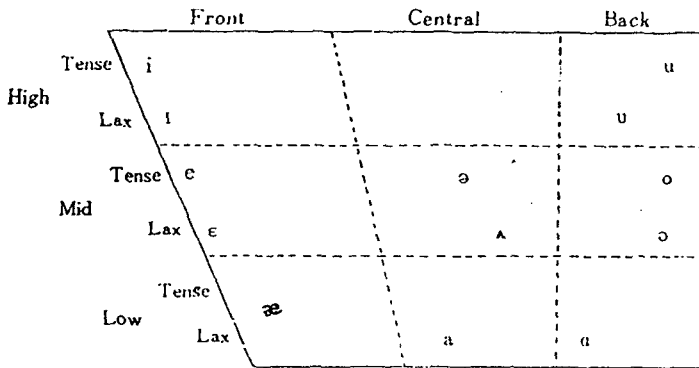


도표 1: 영어의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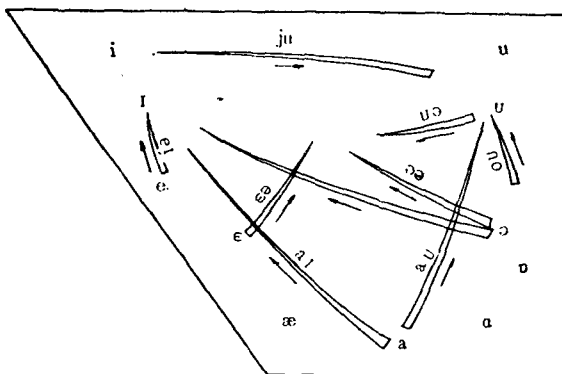


도표 2: 영어의 이중모음

[aʊ] 외에도, 영어의 이중모음에는[er], [ar], [ɔr], [jʊ], [oʊ], [æɪ], [ɛər], [ɔər], [ɔ̄ər]가 있다. 다음의 예들은 불어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영어에서는 이중모음으로 소리나는 것들이다.(영어와 불어에서 철자가 같은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철자를 가진 단어 쌍들을 비교했음)

불어	영어
site [i]	site [aɪ]
fine [i]	fine [aɪ]
mode [ɔ]	mode [oʊ]
téléphone [ɔ]	telephone [oʊ]
couche [u]	couche [aʊ]
Europe [ø]	Europe [jʊ]
computer [y]	computer [jʊ]
mais [ɛ]	main [eɪ]
pour [u]	pour [ɔər]
four [u]	four [ɔər]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영어에는 이중모음이 많이 사용되므로, 이의 영향을 받아 불어의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어의 단모음 [y], [ø], [œ]는 영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들 모음을 이중모음화시키지 않도록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참고: (3)불어의 원순성)

이중모음화 경향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철자식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을 들 수 있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불어에서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철자를 한 소리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습이 없는 한 철자대로 발음하여 결국 이중모음 또는 삼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mais [ɛ]	Paul [o]	feu [ø]
faîte [ɛ]	eau [o]	jeûne [ø]
reine [ɛ]	tout [u]	vœu [ø]
	croûte [u]	

모국어인 한국어의 모음 발음도 많은 긴장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긴장된 조음’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 한국인들은, 긴장이 풀어져가며 발음되는 이중모음을 많이 사용하는 영어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올바른 불어 발음을 위해서는 특별한 ‘근육 긴장의 훈련’이 필요하다.(각 모음을 길게 발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긴장을 유지시키는

훈련, 입술을 둥그랗게 해서 앞으로 힘껏 내미는 원순모음과 입술을 양 옆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i] 모음의 반복 연습, ...)

불어 자음 조음의 특징도 모음과 마찬가지로 발음기관이 긴장되어 발음된다. 입술과 혀는 긴장 상태에서도 유연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긴장으로 인해 불어의 자음들은 영어의 자음보다는 더욱 짧게 발음된다.(예: 마찰음 [f], [s], [ʃ], [v], [z], [ʒ]) 또, 이 긴장으로 인해 자음이 명확하고, 확고히 발음됨으로써 pr, br, dr, vr, fr, sr 등의 자음군의 발음 사이에 중간음 [ə]가 발음되지 않는다. 한국어는 중간 모음 [ə]를 넣어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ə]를 넣지 않고 긴장해서 자음 연결체를 발음하는 훈련이 필요하다.(참고: (4)끝자음의 파열과 모음 첨가 현상)

(2) 불어의 전설성

불어 모음 16개 가운데서 9개가 전설에서 조음되고, 자음 17개 가운데서 13개, 반자음 3개 가운데서 2개가 전설에서 조음된다.(참고: 도표 3.4) 불어의 모음, 특히 전설 모음은 한국어 및 영어의 전설 모음들에 비해 조음점이 좀 더 구강의 앞 쪽에 있다. 즉, 혀가 앞으로 약간 더 전진하여 위를 향해 둥근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 전설음의 사용빈도는 후설음의 사용빈도보다 훨씬 크다. 이와 같이 전방 위치에서 조음되는 경향은 불어 자음의 조음 습관이 혀를 위로 향해 둥글게 하는 경향에도 기인한다. 혀끝 및 혀 앞쪽 부분과 윗니, 치조, 경구개의 앞부분에서 대부분의 조음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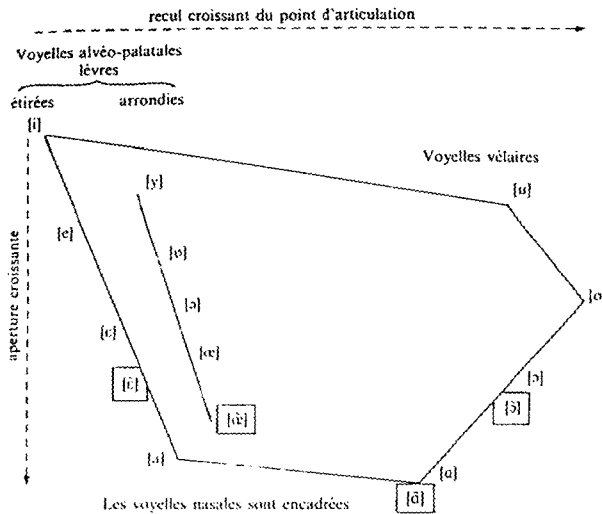


도표 3: 불어의 모음 사각도

영어 및 한국어의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불어의 전설음을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턱을 앞으로 약간 내밀고 위로 약간 올린 채로 발음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불어의 [t], [d], [n], [s], [z]들의 조음점은 영어보다 앞쪽에서 발음되는 치음이지만, 영어에서 이 음성들은 치조음들이다(참고: 도표 4). 즉, 영어의 [t], [d]를 발음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혀끝을 잇몸을 향해 뒤로 당겨서 발음해야 하는데, 불어의 [t], [d]는 오히려 한국어의 ‘ㅌ’, ‘ㄷ’처럼 혀를 윗니 쪽으로 향해서 앞으로 내밀면서 발음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설화 경향에 의해 불어는 청각적으로 밝고 맑은 공명이 이루어진다.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젖소리
불어	p b m	f v	t d n s z	l	ɲ ʃ ʒ	k g	R
영어	p b m	f v	θ ð s z	t d n l r	ʃ ʒ	j	k g ŋ w

도표 4: 불어와 영어의 자음 비교

(3) 불어의 원순성

불어에는 다른 언어들보다 원순모음을 많이 사용하며, 전체 모음 17개 중에서 원순모음이 9개이다.(참고: 도표 3) 원순모음이 발음될 때에는 입술 긴장도가 높아져서 아주 동그랗게 되어 앞으로 쪽 내민 상태가 되어 돌출된다. 이러한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불어의 자음이 심리적으로나 조음상으로 원순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영어에서도 후설 모음 [a]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후설 모음이 원순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불어의 원순모음은 ‘긴장성’과 더불어 더욱 더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긴장되어 발음된다. 한편, 불어의 전설 모음 중 [y], [ø], [œ]는 평순 모음 [i], [e], [ɛ]의 원순형으로서 조음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동그랗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발음 요령이다.

불어의 단모음 [y], [ø], [œ]는 영어에는 없는 발음이며, 한국어에서도 이들에 대해 일대일 대응이 되는 발음이 없다. 한국어에서 지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 /외/ 발음을 살펴보면 [y], [ø]의 정확한 음가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참고 ; 말소리 3, 4, 7-8호 <발음교실>)

우선 /위/의 소리값은 [wi], [ɥi], [y]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자음 앞에 올 때는 [ɥi], 음절 ‘위’에서는 [wi]로 발음되지만 개인차에 따라 달리 발음되며, 단순모음 [y]로

발음되는 경우는 표준말 지역에서 드문 일이다. 다만 짧고 약한 음절에서는 단모음 [y]로 실현되기도 한다.(예: 들켜가 날뛰다.) 한편, /외/도 표준말 지역에서는 거의 언제나 이중모음 [we]로 나지만, 약하고 짧게 나는 음절에서는 단모음 [ø]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예: 열쇠, 피뢰침, 의뢰성, ...)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위/, /외/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어에서도 단모음 [y], [ø]가 없으므로, 불어의 단모음 [y], [ø], [œ]를 발음할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불어의 [y] 를 발음할 때에, 입술을 동그렇게 모으지 않고 발음하여 [i]와 가까운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긴장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어의 [u]를 발음할 때의 조음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입술을 앞으로 쪽 내밀어 동그렇게 긴장시키고, 뒤쪽에 위치시키면서) [i] 소리를 내게 되면, 불어의 단모음 [y] 소리가 가능하다. [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불어의 [o]를 발음할 때의 조음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u] 소리발음할 때보다 약간 입만 더 벌려준 상태)[e] 소리를 내면 된다. [œ] 소리는 [ɔ] 를 발음할 때의 조음상태를 유지하면서([o] 보다 입만 약간 더 벌려준 상태) [e]소리를 내면 된다. [y], [ø], [œ] 발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입술을 쪽 내밀어 동그렇게 하여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4) 끝자음의 파열과 모음 첨가 현상

자음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의 조음 과정을 거친다. 첫째, 구강을 폐쇄하거나 접근시켜 발음 위치를 잡는다. 둘째, 이 위치를 고정시켜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시킨다. 셋째, 이 긴장을 이완시킴과 동시에 발음기관을 개방시킨다. 그런데, 자음은 그 위치에 따라 이 세 단계 중 어느 한 단계가 생략되기도 한다. 어두(initial)에서는 세 단계 모두를 거쳐 발음된다. 모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를 모두 거친다. 그러나 자음이 서로 겹칠 때는 어느 한 단계가 생략된다. 모음 뒤의 어말(finale)에서도 불어의 경우 세 단계를 거쳐 발음된다.

즉, 불어에 있어서 발음되는 끝자음은 반드시 개방을 시켜야 한다. 이 때, 조음시 긴장되었던 근육이 이완된다. 가령, [p], [b], [f], [v] 등은 완전히 개방하여 입을 다시 벌리고, [t], [d], [n], [l] 등은 혀를 조음점에서 떼어 내어 발음한다. 이 개방하는 정도가 매우 분명하고 강하여, 마지막 자음 뒤에 묵음(muets) e[ə]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영어의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의 파열과 개방 단계가 흔히 생략된다. 불어의 마지막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불어에서 끝자음의 개방을 생략하면 그것은 발음상의 중대한 오류가 되며 이해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으]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은(한국어의 음절을 형성할 때 자음에 모음이 꼭 결합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끝자음의 파열과 더불어 [으] 소리를 첨가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이 또한 프랑스 사람들의 귀에 매우 거슬리는 발음이다.

이와 같이 폐음절 다음에 군더더기 모음을 불필요하게 덧붙이는 현상은 한국인이 영어를 말할 때에 범하는 오류 중 하나이다. 주로 [w], [i], [u]가 낱말 끝에 덧붙어 발음되며, 낱말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참고: 이현복(1983))

is [iz] --> [izw]
hit [hit] --> [hitw]
dish [dif] --> [difɪ]
page [peidʒ] --> [peidʒi]
if [if] --> [ifu]
left [left] --> [leftw]
mister [mistə] --> [mistəw]

이와 같은 모음 첨가 현상은 한국어와 영어·불어의 음절구조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오류이다. 이러한 잘못은, 단순한 모음첨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음절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강세와 리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체계적인 음성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는, 불어의 마지막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고립된 상태(리에종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어 단어의 끝자음은 일반적으로 묵음이 된다. 그리고 이 자음 뒤에 철자 e가 있으면 이 자음은 발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벗어나는 단어들이 있다.(예: b, c, f, k, l, m, q, r로 끝나는 단어는 끝자음을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에서는 끝자음 발음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영어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불어의 마지막 자음을 발음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영어	불어
Paris [pæris]	Paris [pari]
port [pɔ:rt]	port [pɔ:r]
Hamburg [hæmbɔ:g]	Hambourg [hābu:r]

(5) 유기음과 유성음

폐쇄음(파열음)은 '폐쇄 -> 압력 형성(긴장) -> 개방'의 3단계가 기본형태지만 모든 환경에서 언제나 이 3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영어의 /p/, /t/, /k/의 경우, 어두의 위치 또는 어중위치에서 강세를 받을 때에는 개방과 동시에 기식음이 수반된다.([p^h], [t^h], [k^h]) 강세를 받지 않는 어중위치에서는 기식음이 수반되지 않으며 ([p], [t], [k]), 어말위치에서는 기식은 물론 따르지 않으며 개방은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해서 개인이나 때에 따라서

자유로이 할 수 있다.(흔히, 개방을 안함) 영어에서 폐쇄음의 발음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어두 또는 강세받는 어중위치: 폐쇄 -> 압력형성 -> 개방 -> 기식수반
pair[p^h], pale[p^h]; time[t^h], tent[t^h]; cut[k^h] cat[k^h]
- ② 강세없는 어중위치: 폐쇄 -> 압력형성 -> 개방
pepper[p], happy[p]; stone[t], star[t]; lucky[k], aching[k]
- ③ 강세없는 어말위치: 폐쇄 -> 압력형성 -> (개방)
la(p), po(p); nu(t), je(t); boo(k), lu(ck)

불어의 파열음 [p], [t], [k]는 기음(氣音)이 수반되지 않는 무기음(non-aspirées)이다. 기음이란 성문을 재빨리 폐쇄를 하지 않아 공기가 성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곳을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일종의 숨소리이다. 불어의 무성 파열음들은 먼저 성문을 긴장시켜 폐쇄한 다음 성문 위의 공기를 압축하여 소리를 낸다. 성문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올 즈음에는 이미 모음의 발음을 예상하여 성대가 진동한다. 그리하여 기음이 발생되지 않는다. 소위 h-aspiré도 h가 기음의 형태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철자상의 관례로 리에종과 엘리지옹을 금지시키는 역할만 가질 뿐이다.

영어의 [p^h], [p], [t^h], [t], [k^h], [k]의 경우, 개방상태가 뒤따르는 데, 만일 다음에 모음이 연결되어 발음될 때에는, 개방과 동시에 또는 조금 뒤에(즉, 기식의 끝에) 그 모음의 성대진동이 시작된다. 그와는 달리 /b/, /d/, /g/의 경우에는 개방이 따르는 점은 /p/, /t/, /k/와 같으나, 성대의 진동이 그러한 개방 직전에 일어난다. 한편, 그 다음에 무성음이 오게 되면, 개방되고 난 다음에 성대진동이 일어난다.([b], [d], [g]: [b], [d], [g]이 무성음화된 음) 한편, 불어의 자음은 유성음이 훨씬 많고, 사용빈도도 높다. 유성자음, 특히 [b], [d], [g], [v], [z], [ʒ]에서는 입을 열자마자 곧 성(聲: Voix)이 울리기 시작하여 발음이 그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영어의 유성자음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음의 조음 시작부터 끝까지 성(聲)을 명확하게 내고 충분히 지속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프랑스인들은 무성음으로 들을 수 있다.

	폐쇄	기식(h)	성대진동
영어 [p ^h], [t ^h], [k ^h]	----->		
	개 방		
불어 [p], [t], [k]	----->		
영어 [b], [d], [g]	----->		
[b], [d], [g]	----->		
불어 [b], [d], [g]>		

(6) 영어 파찰음의 영향

불어의 철자 'ch'는 모두가 [ʃ]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영어에서 철자 'ch'를 파찰음 [tʃ]로 발음하므로, 이의 영향을 받아 [ʃ]를 [tʃ]로 발음하는 잘못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도 파찰음 [ㄷ͡ㅈ]가 있으므로, 이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은 정확한 [ʃ] 발음을 내기 어렵다.

영어	불어
chance [ʃɑns]	chat[ʃa]
change [ʃeɪndʒ]	achat[aʃa]
march [mɑʃ]	roche[rɔʃ]

영어의 [tʃ]의 발음 요령은 먼저 [t]를 발음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혀끝을 잇몸에 가져다 댄 다음, 혀를 천장에 그대로 댄 채로 [ʃ]의 위치를 옮기면서 [ʃ]를 [t]에 이어서 발음하면 [tʃ]가 된다. 한국어의 발음은 혀의 끝 전설 부분을 넓게 잇몸과 경구개 경계 근처에 대고 발음하므로 혀의 첨단은 아랫니의 바로 뒷벽에나 이 뿌리 가까이 높이는 반면, 영어의 [tʃ]는 혀끝 첨단이 잇몸에 닿고 전설의 일부만이 잇몸과 경구개의 경계점에 닿는다. 이와 같이 [tʃ], [ㄷ͡ㅈ] 발음은 마찰과 더불어 파열이 일어나므로 혀가 입 속의 어느 부분과 닿게 되어 있다.

반면, 불어에서 [ʃ]를 발음할 때에는 혀끝을 잇몸에 접근시킴과 동시에 혀 앞부분은 둥글게 흡을 생기게 하여 이 부분과 치조 경구개 부분 사이를 통해 공기를 입 밖으로 내보낸다. 따라서, 혀가 절대로 입천장, 잇몸 등 어느 곳에 닿아도 안된다. 발음 요령으로는 [ʃ]가 원순음이므로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앞으로 대담하게 내밀고 난 다음 발음을 시작한다.

[ʃ]와 동일한 조음위치이나 성대 진동을 수반하는 [ʒ] 소리도 한국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소리이다. 불어 철자 'g', 'j'를 발음할 때 영어의 마찰음 [dʒ]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	불어
gin [dʒin]	gibier [ʒi-bje]
joke [dʒouk]	journal [ʒur-naʎ]
John [dʒan]	je [ʒə]
image [imidʒ]	image [i-ma:ʒ]

영어의 [dʒ] 발음 요령은 [d]를 발음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혀끝을 잇몸에 가져다 댄 다음, 혀를 천장에 그대로 댄 채로 [ʒ]의 위치로 옮기면서 [ʒ]를 [d]에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면 [dʒ]가 된다. 즉, 파열과 마찰이 이루어지는데, 불어의 [ʒ] 발음의 요령은 우선 [ʃ]

발음하듯이 입모양과 혀 위치를 만든 다음(입술을 둥글게 하여 쪽 내밀고 혀는 입 중간에 떠 있는 상태) 성대를 진동시키며 소리낸다. [ʒ]와 [ʒ̃]의 차이는 성대의 진동의 유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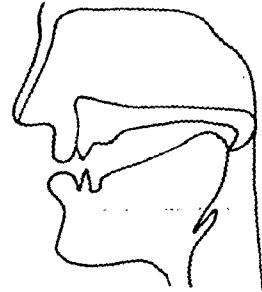
(7) 영어 [r]의 영향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어렵게 여겨지는 발음중의 하나가 [r] 발음이다. 혀를 뒤로 구부려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한 채로 내는 소리라고 배운 한국 학생들은, 불어의 r도 이런 식으로 발음하려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발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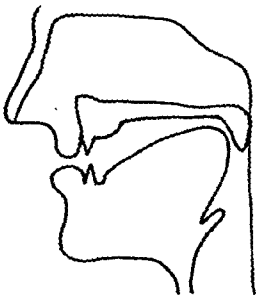
우선, 불어의 철자 'r'에 해당하는 발음은 3가지 발음 [r], [R], [ʁ]이 있다. 혀끝 부분이 개빨리 연속해서 잇몸 부분을 치면서 나는 소리가 설단운음(舌端輪音) [r]이며, 목젓이 혀 뿌리 부분 쪽으로 진동하면서 나는 소리가 목젓운음 [R]이고, 공간이 너무 좁아 목젓이 떨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가 목젓마찰음 [ʁ]이다. 지역 및 개인에 따라 이같은 발음 차이가 있는데, 이들 중 프랑스 Paris 지역 표준 발음은 목젓 마찰음 [ʁ]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음 [ʁ]을 기준으로 영어의 [r] 발음과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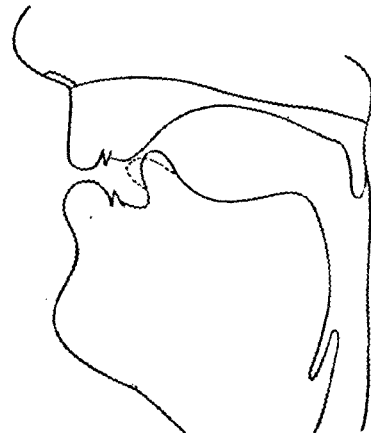
불어의 [r] 발음



불어의 [R] 발음



불어의 [ʁ] 발음



영어의 [r] 발음

영어의 음성학에서 [r]을 설단치경추이음(舌端齒莖推移音: apico-alveolar glide)이라 부르는데, 이 명칭에서 잘못 생각해서 안되는 점은 혀끝이 [t], [d] 같은 경우처럼 치경(齒莖)의 위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로 구부러져서 치경의 뒤쪽(post-alveolar)의 위치까지 접근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일반적으로 권설음(捲舌音: retroflex)이라고 부른다. 우리말에서는 ‘ㄹ’이 [r]에 해당하는데 우리말과 영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어의 경우는 혀끝이 치경의 맨 안쪽을 향해 구부러지는데 비해 우리말의 경우는 치경의 앞쪽으로 더 접근한 점이 다르다. 한편, 영어의 [r] 소리는 앞 뒤의 소리의 영향 및 영국, 미국 등 지역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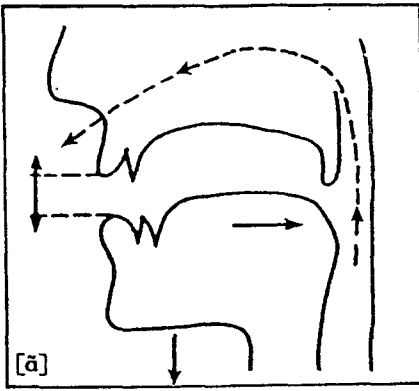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영어의 r 발음은 주로 혀끝을 사용하나 불어의 표준 발음 [ʁ]은 혀 뒷 부분과 혀 뿌리를 이용하여 조음하게 된다. 이 때 혀끝은 아랫니 뒷 부분에 닿게 한 채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 뒷부분을 향해 올려 이 사이를 좁게 하면서 마찰시켜 조음한다. [ʁ]은 조음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혀끝이 아니라 혀 뒷 부분과 혀 뿌리가 조음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혀끝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처럼 아랫니 뒤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ʁ]을 발음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음 도중에 혀를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둘째, [ʁ] 앞이나 뒤에 있는 모음에 따라서 [ʁ] 소리가 약간씩 변한다. 셋째, 불필요한 /ʁ/ 소리를 낸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발음이 끝날 때까지 알맞은 혀의 위치를 지키고 혀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또, [ʁ]은 유성 자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대의 진동이 따라야 된다.

(8) 영어 [ŋ]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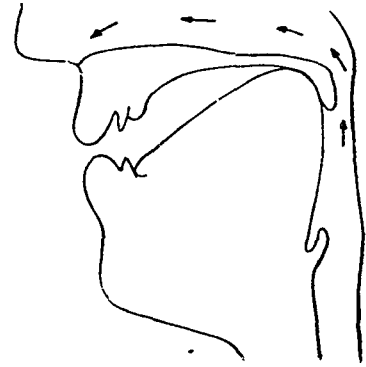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불어 비모음 [ɑ̃], [ɔ̃], [ɛ̃], [œ̃]은 특유의 음이다. 비모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있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는 너무 강하게 발음을 시작하는 이가 의외로 많이 있으며, 이들이 어말에 있을 때는 영어의 [ŋ]을 도입하여 [aŋ], [ɔŋ], [ɛŋ]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어의 비모음이 영어의 [ŋ]이나 한국어의 종성 ‘ㅇ’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어의 비모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강 모음 소리가 조음되면서 동시에 공기의 일부가 코로 빠져나가면서 공명을 일으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비모음을 구강 모음과 분리할 수도 없고 또 분리해서도 안된다.

영어	불어
bank [bæŋk]	dans [dɑ̃]
length [leŋθ]	vin [vɛ̃]
long [lɔŋ]	ton [tɔ̃]
dong [dɔŋ]	un [œ̃]

우선, 영어의 [ŋ]의 조음위치는, 후설이 높이 올라가서 연구개에 닿아 구강성도를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연구개-목젖은 인두벽에서 떨어져 비강을 연 채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면 음성과 호흡은 비강을 통해 밖으로 흘러 나간다. 불어의 비모음인 경우에는 후설이 연구개에 닿아서는 안되며 즉, 구강 성도가 폐쇄되지 않고 구강과 비강으로 동시에 공기가 나가면서 발음된다. 한편, 영어나 한국어에서처럼 발음 도중에 턱을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안되고 턱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코로 공기의 일부분을 내보내면서 공명시켜야 한다. 즉, 조음이 끝날 때까지 발음기관을 움직여서도 안되고 콧구멍에서는 공기가 계속 흘러나와야 한다. 너무 입을 오므리고 딱딱하게 발음하거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거나 모음 발음 다음에 [ŋ]을 연이어서 내는 발음은 교정되어야 한다.



불어의 비모음



영어의 비자음

(9) 반모음 [j], [w], [ɥ]

불어에서 반모음(반자음 또는 전이음)에는 [j], [w], [ɥ] 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모음에 비해 조음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모음에서 다른 모음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음되는 과도기적인 음성이나, 이들 반모음은 그에 상응하는 모음들과 관련시켜 그 음조를 생각해 보는 것이 편리하다.

- ┌ [j] - [i]
- ├ [w] - [u]
- └ [ɥ] - [y]

[j] 소리의 최초 조음위치는 [i]와 유사하다. 혀바닥 양쪽의 경구개 및 양쪽 윗니에 접촉하여 턱 중앙부와 경구개 부분이 극히 좁게 된다. 혀끝은 아랫니에 딱 대고, 혀의 중앙부가 순간적으로 경구개를 향해 올라가면서 조음된다. 불어의 [j]음을 내려면 우리말의 [야]나 영어의 you를 발음할 때보다 더 힘차게 조음을 해야 한다. 불어의 [j]를 발음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j]음이 자음 바로 뒤에 올 때 그

자음과 [j]음 사이에 불필요한 모음을 끼워 넣는 일이다. 가령 lion[ljɔ̃]을 발음한다면 자음 [l]와 반모음 [j] 사이에 모음 [i]를 넣어서 [lijɔ̃]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j]음이 어말에 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완전히 이중모음이 되는 일이다. 가령 단어 [bai][baj]를 발음한다면 [j]를 [ij]로 이중모음화하여 [baj]가 아니라 [bajj]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반모음 [w]은 모음 [u]의 조음과 동일하게 혀와 입술을 위치시키고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그 뒤의 모음으로 재빨리 전이시키면 된다. 혀끝은 아랫니로부터 떨어져 안 쪽으로 약간 당기고 후설 부분을 연구개를 향해 높이 올린다. 게다가 [w]가 반모음이라는 사실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듯이 [u]와 유사한 독립된 모음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혀와 턱, 입술 등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정확한 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입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입술을 긴장시켜 원형을 만드는 기초적인 연습을 꾸준히 계속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정확한 조음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발음기관의 위치 선정을 소홀히 하고, 발음할 때에 입의 움직임을 게을리 하게 되면, 가령 bouée 같은 단어를 읽을 때, 앞의 자음 b와 그 뒤의 모음 [we]의 사이에 불필요한 모음 [u]가 끼여들어서 [buwe]로 틀린 발음이 될 수밖에 없다.

반모음 [ɥ]는 모음 [y]의 조음과 동일하게 혀와 입술 모양을 잡은 다음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뒤이어 나오는 모음을 빨리 발음하면 된다. 혀끝은 아랫니에 접촉되고 후설은 낮아지며, 전설이 경구개를 향해 빨리 이동한다. [ɥ]음은 우리말과 영어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내기 어려운 소리임에 틀림없지만, 발음기관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꾸준히 연습하면 오래지 않아 숙달될 수 있다.

학생들이 [ɥ]를 발음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ɥ]를 [w]와 심지어는 [u]와 혼동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발음시의 혀의 위치를 잘못 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ɥ]음을 낼 때에는 혀끝만 아랫니 뒤에 닿아 있고 혀끝을 제외한 혀의 앞부분은 경구개의 앞부분 쪽으로 높이 치켜 올라가서 혀가 전체적으로 입 안의 앞쪽으로 쏠린다. 이에 반해 [w]음을 낼 때에는 혀끝이 아랫니의 뒷면을 떠나서 뒤쪽으로 약간 후퇴하여 입의 바닥에 남아 있고, 혀의 뒷 부분은 입의 뒤 쪽으로 당겨지면서 연구개 쪽으로 솟아 올라가서 혀가 전체적으로 입의 뒤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음을 해야 한다.

(10)악센트와 연음(리에종)

영어에서는 악센트의 위치가 단어에 따라 각기 달리 주어진다. 또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악센트를 달리하면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한다. 가령 'rebel, re'bel과 'import, im'port에서 앞음절에 악센트가 주어지는 경우는 명사이며, 뒷음절에 주어질 때는 동사이다. 그러나 불어에서는 단어 내의 일정한 음절에 항상 악센트가 주어진다. 악센트는 항상 마지막 음절에 주어지 이 음절이 세게 발음된다. 그러나, 영어에서처럼 악센트가 발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악센트가 주어진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약간 강하고, 높고, 길게 발음될 뿐이다.

한편, 불어에서는 문장의 단어들 이 각각 악센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리듬그룹에 의해서 악센트가 주어진다. 즉, 말할 때 일정한 위치에 항상 악센트가 오게 되는데, 이 악센트의 단위가 리듬그룹이다. 그러므로 각 단어의 악센트는 없어지고, 리듬그룹의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 리듬그룹내의 단어들은 서로 연독이 되어, 단어 경계가 없어지고 마치 한 단어처럼 읽혀진다. 이 리듬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자음연음(enchaînement consonantique: 앞의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에 이 자음과 뒷 단어의 모음을 연결해서 읽는 것)과 리에종(liaison: 발음되지 않은 단어의 끝 자음이 뒤에 연결되는 단어의 첫 모음과 결합하여 발음되는 것)이 있다. 불어를 읽고 말할 때는 이 리에종을 잘 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단어라도 뒤의 단어가 모음이나 자음이나에 따라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리에종이 많이 되는 자음은 d, t, s, x, z 등이고, 이들이 리에종 될 때는 단독으로 발음되는 때와는 발음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d, t는 [t]로, s, x는 [z]로, g 는 [g] 또는 [k]는 발음된다.

(예) les.ami [lezami]
un grand.enfant [grātāfā]
deux.ans [døzā]

Ⅲ. 맺는말: 불어 발음 교육

영어와 불어는 거의 같은 발음기호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음가가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어 발음에 끼친 영어 발음의 영향을 살펴보면, 결국 불어의 기본 모음, 자음, 반모음을 기술한 셈이 되었다.

이같은 불어와 영어의 발음 차이 때문에 불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은, 불어의 발음이 영어에 비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영어의 발음이 대체로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변화하며, 많은 이중모음이 있고, 영어의 성음이 전후 환경이나 강세가 있고 없음에 따라 많이 변화하므로, 영어 발음을 완전히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불어 성음의 특성은 첫 조음 상태가 끝까지 긴장 유지되는 것이므로, 혀의 위치(전설성)와 입술 모양(원순성)만 잘 잡고 긴장을 유지하면 올바른 모음 발음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어의 자음 소리에 약간의 긴장을 가하면 대부분의 불어 자음 발음이 용이하다. 따라서, 불어 발음 교육시, 영어 발음과 비교하며 불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발음에 기반을 두고 불어 발음을 습득시키는 것이 학생들에게 정확한 불어 발음을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겠다. 단, 불어에서는 음성들의 결합 관계에서 생겨난 음성적 현상인 리에종이 발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 참고문헌 >

- 이현복: '영어발음교육문제', 언어교육4권1호, 서울, 1972.
'영어 음성학 교육의 몇 가지 문제 발음', 영어영문학 제 51-52호, 서울, 1974.
'현대 서울말의 모음음가', 어학 연구 7권 1호, 서울, 1971.
'서울말의 모음체계', 어학 연구 7권 2호, 서울, 1971.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문자, 과학사, 서울, 1981.
영어: 군더더기 모음 첨가, 말소리 6호, 서울, 1983.
한국어: /외/모음의 소리값, 말소리 7-8호, 서울, 1984.
'Visi-Pitch에 의한 운율 자질의 분석 고찰', 말소리 9-10호, 서울, 1985.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의 리듬을 중심으로)
한국어: /위/모음의 소리값, 말소리 9-10호, 서울, 1985.
- 김영송: '한국어와 불어의 발음 비교', 말소리 2호, 서울, 1981.
- 허 응: 언어학 개론, 정음사, 서울, 1963.
언어학: 2 대상과 방법, 샘 문화사, 서울, 1981.
- 홍재성, 전성기, 김현권 공저: 불어학 개론,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서울, 1989.
- 장병기, 김현권 공저: 불어 발음 연습,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서울, 1990.
- 홍승오, 김현권 공저: 불어 음성학,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서울, 1989.
- 김한곤: 영어음성학,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서울, 1984.
- Capelle, J.: Manuel programmé d'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et à la phonologie du français, B.E.L.C., Paris, 1976.
- Chiss, J., Filliolet, J. et Maingau, G.: Linguistique Française, Hachette, 1977.
- Pardes-Tamine, J.: La grammaire: Phonologie, Armand Colin, Paris, 1990.
- Germain, C., & Le Blanc, R.: Introduction à la linguistique générale: 1. Phonétiqu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Montréal, 1981
- Léon, Monique: Exercices systématiques de prononciation française, B.E.L.C., Hachette et Larousse, Paris, 1976.
- Léon, P.: Prononciation de français standard, Didier, Paris, 1978.
- Léon, P.: La phonologie, Klinksieck, Paris, 1977.
- Malmberg, B.: Les domaines de la phonétique, P.U.F., 1971.
- Malmberg, B.: phonétique, française, Kristianstard, Paris, 1975.
- Malmberg, B.: La Phonétique, P.U.F., Paris, 1979.
- Pagniez-Delbart, T.: A l'écoute des sons: les vogelles, C.L.F., Paris, 1992.
- Pagniez-Delbart, T.: A l'écoute des sons: les consonnes, C.L.F., Paris, 1992.
- Pho, Jin-Hee: 'Quelques suggestions pour les stratégies de la correction phonétiques

- coréens qui apprennent le français', 한국 불어 불문 학회 제 11집, 서울, 1976.
- Jones, Daniel: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W.Heffer & sons, 1960.
- Ladefoged, Peter: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 Wells, J. C.: Practical Phonetics, Pitman Publishing, 1971.
- Léon, Warnant: Dictionnaire de la Prononciation française dans sa norme actuelle,
Duculot, 1987.
- Galbert,L., Lagane,R., Niobey,G.: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arsaise, Larousse, Paris,
1971.
- Mansion,J.E.: New Shorter: French and English Dictionary, Harrap, London, 1967.